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현재

인권교육센터 '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

배경내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경기도,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선포

서울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 지금 학교에 인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그리는 학교

- ▶ 자발성에 기초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 ▶ 체벌, 성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등 폭력 없는 학교생활
- ▶ 차이가 존중되고 차별 없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의견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개성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학교생활
- ▶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 돌봄이 있는 학교생활
- ▶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생활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급 혼

네 성적에 잠이 오냐?

급 혼

우

아프니까

주

부담이

정

직업은

복

복습한다

급 혼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 할래,
공장가서 미싱 할래?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제기랄..



중고등학생 최후의 날

학교개학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주요 초중등 교육정책 변화

항목	내용
영어 공교육 혁신	초3~6학년 정규 영어수업 확대, 재량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영어학습 확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추진 및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강화
	영어몰입교육 보류, 단 서울 1개 초등학교 몰입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국제중학교 설립	내년 3월 영훈, 대원중 국제중으로 전환
	1단계 학생부 중심 5배수 선발, 2단계 토론 중심 3배수 선발, 3단계 추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11년까지 농산어촌 지역 우수교를 중심으로 기숙형공립고 150개 지정, 지역 거점학교로 육성(올해 82개), 교원채용, 학사운영 등 자율화
	2012년까지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도입
	2011년까지 미래형 직업전문고, 마이스터고교 50개 운영(올해 20개 지정)
고교선택제 실시	현재 서울 중2년생 2010년부터 최대 4개교까지 지원가능
	1단계 서울 전체 고교중 2곳 지원, 2단계 거주지 학교 2곳 지원, 3단계 인근학교 강제배정
학교자율화 추진	교과부 '0교시 수업',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고교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후 학교, 사교육업체 운영가능
	서울시교육청, 이 가운데 '0교시 수업', 우열반은 금지
일제고사 부활	올해부터 초6, 중3, 고1 대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전국학력평가 실시
	2010년 시험부터 학교별 성적 3등급으로 나눠 공개
대입 3단계 자율화	2012학년도(현재 중3 적용)부터 수능 응시과목 축소 및 대입 완전자율화 실시



왜 그토록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냐고?



**학생인권조례,
무엇에 발목 잡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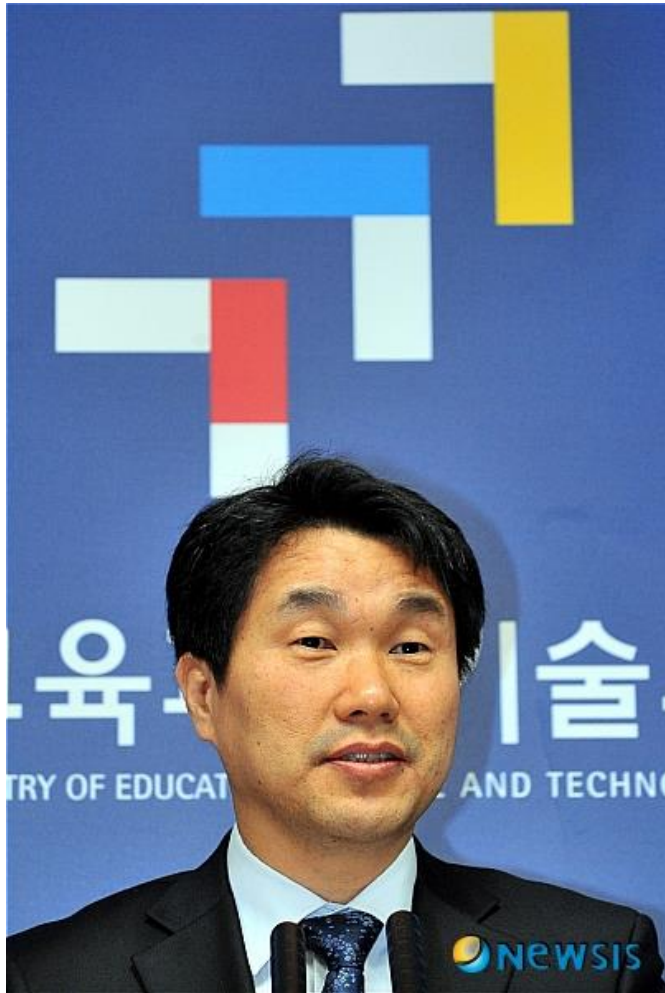




- ☞ 밑천이 참으로 없구나
- ☞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엉망이다
- ☞ 잃을 게 많은 이들은 참으로 전략적이고 열정적이다
- ☞ 교사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으로 힘들다



교총, 교과부, 한나라당이 교사를 위해주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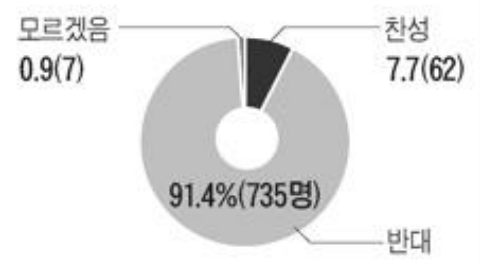


☞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교사들 숨통 틈었다?

교육 현안에 대한 전국 교장들 설문 조사 결과 단위: %(명)

※한국교총이 7월 26일~8월 5일까지 전국 학교장 804명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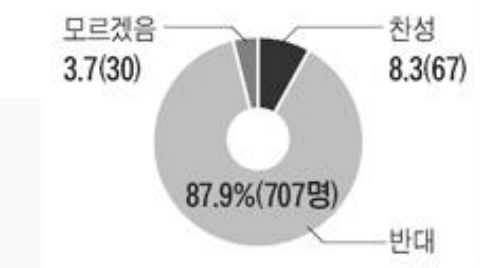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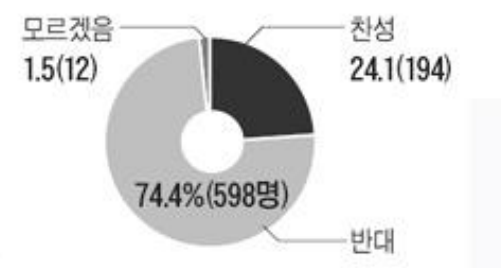
체벌 대체 프로그램 효과



학생인권조례안



전면 무상 급식 실시



좋은 기름 기쁨이요!
S-OIL
-5년 장기 -13~-4년 30% 할인
일정간 707555 50%

東亞日報

donga.com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0434661 (총매 12월 21만 6천)

영웅' 식해군 선장과 선원들의 기적

!장내고 逆항해 들켜 못매 몰린 해적 "모두 선장때문" 들춰 찾아내 4발 보복총격

단원지간 친목과 AFS소속 3명 등 배신자 전횡을 당한 40명 무장해적들은, 군 관계에서 기밀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적진으로 적의 정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4차 적진 남동부 500여해는 삼중포격으로 적의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4차 적진 남동부 500여해는 삼중포격으로 적의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이 과정에서 함정 1척을 격침시켰다.



대한민국 자존심 구축한 최영환 중장군.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은 완벽한 작전 수행으로 삼중포격으로 선원들을 모두 구한 최영환 중장군. 최영환 중장군은 2009년 12월 12일 19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진은 올해 1월 24일 19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 모습이다. 최영환 중장군은 2009년 12월 12일 19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사진은 올해 1월 24일 19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 모습이다.

1981-2011 박완서에게 '못가본 길로 떠난 문단의 어머니... 이 겨울은 쓸쓸했네'

소설가 박완서 씨(사건)가 2011년 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생명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2010년 11월 25일 19대 대통령직속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완서 씨가 1981년 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생명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2010년 11월 25일 19대 대통령직속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7명 29일 귀국 예정

영웅' 식해군 선장과 선원들의 기적. 단원지간 친목과 AFS소속 3명 등 배신자 전횡을 당한 40명 무장해적들은, 군 관계에서 기밀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적진으로 적의 정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 -유년부의 실패 가능성. 전교조는 운동부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웅' 식해군 선장과 선원들의 기적. 단원지간 친목과 AFS소속 3명 등 배신자 전횡을 당한 40명 무장해적들은, 군 관계에서 기밀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적진으로 적의 정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영웅' 식해군 선장과 선원들의 기적. 단원지간 친목과 AFS소속 3명 등 배신자 전횡을 당한 40명 무장해적들은, 군 관계에서 기밀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적진으로 적의 정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영웅' 식해군 선장과 선원들의 기적. 단원지간 친목과 AFS소속 3명 등 배신자 전횡을 당한 40명 무장해적들은, 군 관계에서 기밀 작전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1차 적진으로 적의 정찰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동아>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 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조선>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실패할 듯

<뉴시스> 경기도 120여개교 학생인권조례에 '콧방귀'

<뉴데일리> 교장들 "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달세

<동아> 전교조, 혁신학교 동원 조례 서명 계획

'무서운 10대들' 청소년 조직 절도 잇따라

[2008-04-24 07:44:56]

성폭력 '불안한 10대 · 무서운 10대'

무서운 10대... '무면허에 대포차까지'

[2008-05-06 14:24:51]

무서운 10대 여학생들, 금품갈취에 절도

[2008-08-06 11:07:41]



청소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신 나간 좌파들이 무분별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하여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하였다. 공격의 첫 대상은 청소년이었지만 애초부터 대처주의의 목표는 교원노조와 진보 전체였으며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진보의 가치 자체였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압적인 '법과 질서'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 엄기호, <공격받는 청소년>

반면 학생인권의 얼굴은?



'추락하는 교권'...학생이 여교사 폭행

➤ 여교사 수난시대?



▲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 선생님 꼬시기? 여교사 수난시대? 교권 문제로만 접근할 때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누가 표적으로 선택되었나? 상대적 약자인 신규, 비정규, 젊은 여교사가 주로 표적으로 선택되는 이유

☞ 폭력의 문화를 인권의 문화로 재구성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교사임에도 학생인권을 말한다?



“실내화 규정을 없애고 나니 아이들 눈을 보게 되더군요.”

“애들이 제 앞가림은 하게 해줘야 내가 좀 편해지겠다.”

“나 혼자 힘으로 애들 인권 못 지켜준다.”

“혼자 교실 청소하는 거 싫다.”

“매를 내려놓으니 질문이 시작되더라..”

▶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東亞日報

2010년 07월 02일
35면 (오피니언)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條例)'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7일에는 전교조 서울지 학생인권조례는 6·2지방선거는 교육감 후보가 공인후보, 이공계권력 세력권인 신성민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에게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커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는 좌파 화감을 조장할 11개 집회의 자 권을 허용하는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최근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에서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청소년 인종주의!

맞을 짓 vs. 맞아도 되는 사람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에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드시 비교육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 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만 해도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다. 학생들

소년들이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광우병 쫓달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공동체 생활규범

원칙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공동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참여, 소통, 희망, 신뢰의 배움 공동체 가치를 구현한다.

각 구성원의 생활원칙

- 교사 : 체벌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욕설, 비속어, 증오발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등
- 학부모 : 내 아이 중심에서 벗어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등
- 학생 : 자신을 가꾸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함께 성장한다(기다리기보다는 협조를 청한다/ 도와주기보다는 함께 해결한다)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방향

- 학생생활인권규정 마련의 민주성, 합리성 추구
- 유의사항
 - 학생인권 존중 및 교사-학생 간 신뢰 구축 : 순간 감정 조절하기/ 교무실 호출 안 하기(벤치, 함께 걷기 등 활용)/ 무릎 꿇리기 안 하기/ 증오발언 안 하기/ 다수 앞에서 모욕주지 않기
 - 지도 전에 먼저 상담하기

 학교와 교사가 신뢰를 보여줄 때 생활교육이 된다

 수업혁신에 초점을 맞춘 장곡중, 차이는 '생활지도'에서 비롯



이우고의 화장실 테러 사건, 교사들의 선택은?



4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안)- 중등

단계	조 치	조치 내용	담 당 자
1	경고/상담	- 교사의 훈계 /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 생각 의자에 앉아 있기	담당교사
3	교실 밖 격리 (Time-Out)	- 성찰 교실 프로그램 참여 · 방과 중 자기주도학습 실시 · 방과 후 잔류 지도	교감 전문상담인력
4	대체 프로그램 이행	- 대체 프로그램 미이행 시 재지도 - 지도 불응 시 징계 경고 - 학교관리자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5	징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지역교육청에 위탁 교육 가능)	학교관리자
6	징계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관리 - 학생인권복지팀(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청 소년지도사 배치)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 램 운영 - 징계 프로그램 이수 이후 최종적인 교육 조	교육지원청

➤ 교사가 체벌을 안 해도 되는 환경, 학생인권과 교육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기획

➤ 진정한 교권이란 무엇인가?



학생이 미성숙하다 가정될 때 교사의 권리도 제한된다





**학생인권조례,
역전만루홈런을 꿈꾸다**

➤ 역전의 비법

- ☞ 말을 건네자
- ☞ '관'에 기대는 사고를 버리자
- ☞ 하는 척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운동하자
- ☞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 ☞ 사회적 메시지를 바꾸자





✓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값싼 폭력보다는 낫다."

✓ "백신 접종을 맞는 시기다."